

문화유적지, 울동공원 마을 이야기

울동(栗洞)의 명칭은 마을에 밤나무가 많았고, 한 그루에서 서 근(斤)이나 되는 밤이 생산되어 '삼근울(三斤栗)'이라 하며 이 지역을 서근배미, 서근바미 또는 취울리(取栗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울리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73년 성남시 울동이 되었으며, 1992년 5월 동 전체가 분당동에서 분리된 서현동의 관할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울동공원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 예술의 명승지이다. 1960년대에 조성된 분당저수지를 중심으로, 30만 8648㎡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여 1999년 8월 30일에 개원하였다. 자연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철새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호수 주변의 갈대밭은 아름다운 자연의 운치를 한결 더 느끼게 한다. 국내 최대 높이(45m)를 자랑하는 번지점프대는 울동호수를 바라보며 곤장, 뛰어내리도록 되어 있어 점프장면을 관람하기 위하여 찾는 관광객도 적지 않다. 그리고 분수대의 물줄기는 최고 103m까지 솟는 것이 장관이며, 호수를 한 바퀴 도는 2.5km의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번지점프는 남태평양 펜타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이 성인이 되는 자격요건으로 체력과 담력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발목에 포도넝쿨이나 나무줄기, 칩뿌리 등을 감고 30m정도의 높이에서 멈춰야 하는 담력 테스트를 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처럼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울동공원에는 유서 깊은 역사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문정공 한계희의 묘소를 비롯하여 400년 넘게 이 고장을 지켜온 청주한씨 문중의 산 역사가 숨 쉬고 있고, 일제시대에는 성남지역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울동 산2-1번지의 태봉(胎峰)은 조선 성종의 어태(御胎)를 안치하였다고 구전되는 곳으로, 문정공 한계희(韓繼禧)와 공간공 한사

문(韓斯文) 묘역 중간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나지막한 구릉이다.

이 태봉은 『청주한씨족보』의 「분산도(墳山圖)」에 뚜렷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일



성남 3·1 운동 기념탑

대가 청주한씨의 사패지로 하사되면서 성종의 어태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태봉산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다시 일제강점기에 고양시 원당동의 서삼릉(西三陵)으로 이전되었다. 또한 1999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발간한 『조선의 태실』에는 '정상의 태실 자리가 폭 파여 있어 도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표에 태비도 없고 관련 전설도 전하지 않아 이곳이 누구의 태실인지 알 수 없고, 다만 태봉의 형국에서 볼 때 조선 왕실의 태실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울동에는 청주한씨 외에 순흥안씨, 진주유씨, 의령남씨 등의 선조와 그 후손들의 묘역이 다수 안장되어 있다.

의령남씨 묘역은 새마을연수원과 국궁장(분당정) 인근의 낮은 구릉에 안장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 인물의 묘역으로 조선 후기의 문장가, 정치가로 영의정이 되어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던 남공철의 아버지인 남유용(南有容)의 묘소가 있다. 남유용은 1747년(영조23) <군덕10조(君德十條)>를 진언하여 군주의 성실을 강조했다. 1754년에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어 세손인 정조를 무릎에 앉혀놓고 글을 가르쳤고, 1757년에는 원손사부(元孫師傅)가 되어 호랑이 가죽을 하사받았다. 1767년 봉조하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봉조하란 평생동안 실무를 보지 않으면서도 신분에 맞는 녹봉(祿俸)을 받으면서 다만 국가의 의식이 있을 때에만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는 명예직이다. 인물됨이 실박하면서도 바른말을 잘하고 청백했으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청주한씨 묘역은 세조 때, 한계희의 묘소 일대를 사패지로 받고 그 후로 한사계(韓士介), 한석(韓碩) 등이 세거하면서 대대로 한씨 집성촌이 이루어져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정공 한계희의 묘와 신도비는 1994년 4월 20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4호로 지정되었고, 산6-2번지의 청연공파 묘역은 2009년에 성남문화원의 청원으로 성남시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다. 성남 울동의 청주한씨는 조선의 국호 선정을 비롯한 나라의 기틀을 안정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으며, 근대사에 있어서도 독립운동을 배출하는 등 성남지역에서 5세기 이상을 세거하면



울동공원

서 큰 업적을 나타낸 문중이다. 청련공 한지원(韓智源)은 중국 송나라의 소동파 3부자에 비견되는 문장가로, 청연공의 아들인 술(述)은 임진왜란 초기 명나라 제독을 접견 하는 등의 외교관으로, 회(懷)는 효성이 지극했으며 역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등의 업적을 보였다.

울동 순흥 안씨 묘역의 대표적 인물로는 안호, 안침 형제를 꼽을 수 있다. 안호(安瑒)는 고려 말의 성리학자인 안향(安珦)의 후손으로, 공조판서를 지낸 안침의 형이다. 사관(史官)으로 양성지 등과 함께 여러 문적 가운데 표시된 중요지명을 뽑아 『북정록(北征錄)』을 편찬하였다. 안침(安琛)은 한때 임사홍의 간사함을 폭로하여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다가 임사홍이 물러난 뒤에 다시 등용되었다.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1514년(중종 9) 특별히 공조판서에 발탁되었다가 바로 병사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필법은 송설체로서 해서에 뛰어났는데, 하남에 있는 세종대왕의 왕자인 밀성군침비(密城君琛碑), 울동공원의 좌찬성 한계희비(左贊成韓繼禧碑)와 시흥의 월성군 이철견비(月城君李鐵堅碑)가 있다.

울동 성교촌(聖敎村)은 신교촌(信敎村)이라고도 하는데, 천주교 박해 때 신도들이 피신하여 은거하면서 웅기를 구워가면서 생활하였던 터라고 전해지고 있다. 국궁장(國弓場)에서 큰 능안골의 포장도로 끝나는 곳의 나지막한 구릉 말단 지점에 서북향하여 위치한다.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1919년 3월, 성남지역에서도 낙생면에서는 면장 출신인 남태희가 주도하고, 돌마면 울리에서는 한백봉의 주도하에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3월 27일을 기하여 동시에 전개되었다. 이때 성남의 숲골(탄리), 남한산성, 광주 및 하남지역에서도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시위가 벌어져 일제 헌병을 당황케 하였다. 한백봉은 돌마면 내 12개리와 오폐면 일부 및 낙생면 일부를 잠행하면서 활동하여, 3월 26일 오후부터 동민 약 100여명을 동원, 봉화를 올리고, 3월 27일 돌마면 분당리 장날, 장터에 3천명이 집결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시위를 주도 하였다. 이로 인해 낙생면 판교 및 남한산성으로 연행되어 3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되어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또한 1927년부터 경기도 광주군에는 뜻있는 애국지사들이 신간회 광주군지회를 결성하였는데 여기에 한백봉과 한순회 등이 참여, 1930년까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항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다. 한순회(韓順會) 역시 청주한씨 인물로서 1927년 신간회 광주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33년 이후에는 천도교 경성교구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교도들로부터 특별희사금을 모금하다 붙잡혀 2개월 10일의 옥고를 치렀다. 1993년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 성지에는 만세운동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태극의 울림”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세운 기념탑이 우뚝 서서 그날의 함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본인 외 남선우, 한동익, 김대진 등에 의해 2006년 3월 1일에 건립하였으며,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매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울동공원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명승지이다. 이곳 울동 공원 주변으로는 특징적인 몇 가지를 더 손꼽아 볼 수 있는데 책 테마파크, 국군의무사령부, 새마을연수원, 전통 국궁 활터인 분당정 등이 그것이다.

책 테마파크는 국내 최초로 책을 테마로 만든 공원이다. 기존의 책을 읽는 도서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독서의욕을 고취시키는 창조적인 공간이며 공연, 전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진 ‘바람의 책’, 책의 역사를 그린 미로형상의 ‘시간의 책’ 등 8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책과 함께 즐겁게 호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1954년 3월 마산에서 창설된 육군의무기지 사령부가 1971년에 국군의무사령부로 개칭한 것이다. 1984년에는 3군의 국군의무지원체계를 통합하였고 부대를 서울로 이동했는데, 성남시 울동으로 오게 된 것은 1999년 12월이다. 2002년 10월 건군 제54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국군장병과 전투경찰, 6·25 참전용사, 창군용사, 주한 외국무관 및 가족, 귀순자 등의 질병치료와 군진의학(軍陣醫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군진의학이란 군대에서 요구되는 의료기술 및 학술체계를 통칭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매년 군진의학관련 논문집 발간 및 정기적인 세미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형 번지점프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1972년에 경기도 고양 농협대학 내에 독농가연수원으로 설립되었고, 1983년 4월 26일 현재의 울동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해 12월 3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통합되었다. 이어서 199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치고, 1993년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연수원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울동공원에는 전통 국궁장이 있는데 1999년 8월 15일에 울동정이라 이름하여 문을 열었고, 지금은 분당정으로 이름을 고쳤다. 울동공원에는 오래전부터 활터거리라는 지명이 있어 왔는데, 청주한씨 묘역 내에 유택이 있는 한명옥(韓明勗)과 관련 있는 곳이다. 한명옥은 『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했고, 1646년(인조24) 자헌대부에 올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는데, 훗날 이곳 울동에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활쏘기를 즐겨했기에 활터거리라 불렀다고 한다. 옛말에 “손에도 이끼가 끼고 뼈에도 녹이 쓰는 법”이라 하여 무예수련을 독려하는 대표적인 말이지만 전통 국궁은 인격수련을 겸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울동공원 책 테마파크